

성 뵈리카르포스 대순교자 (2 월 23 일 축일)

오늘 복음에서 현장감 넘치는 상황 설명과 인상 깊은 대화로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웃에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며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훌륭하게 실천한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축일로 지내는 성 뵈리카르포스 대순교자입니다. 성인은 위대한 교회에서 모범을 보인 분이었습니다.

성인은 에페소에서 그리스도 신자인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에페소에서 지냈던 사도이자 복음 저자인 성 요한 신학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20 세 무렵부터 스승 성 요한의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사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성 요한이 자주 언급하던 주제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성 뵈리카르포스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했고 후에 성직자로 봉직하면서도 실천했습니다.

성 뵈리카르포스는 성 요한 신학자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은 성 부끌로에 의해 사제와 즈미르나의 주교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즈미르나의 주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듯 사나운 '이리떼처럼 '그 지역을 장악한 여러 이단이 창궐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 20,29 절 참조) 이런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 성 뵈리카르포스는 왜곡된 이단들의 선동을 반박하며 정교회 신자들의 수호자로서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 사도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올바른 교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단에 빠진 많은 신자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동시에 성 뵈리카르포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우상 숭배자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느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성인은 즈미르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소아시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처럼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영혼을 밝히고 신자들이 정통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주 여러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 중 하나만 전해졌는데, 마케도니아의 필리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입니다.

한편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히 고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즈미르나의 사제로 봉직했을 때는 고아원을 잘 운영해서 성 부골로 주교로부터 명예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주교였을 때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사회의 소외계층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을 위로하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그 외에도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큰불이 즈미르나에 났는데 모든 것이 타 버릴 것 같은 그 화재도 성인은 기도를 통해서 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4년 후에 즈미르나의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인 가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아 곡물들과 과일들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성인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인은 뜨겁고 강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곧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비가 내려 땅은 다시 생기를 얻었고 가뭄은 해결되었습니다.

성 뵈리카르포스는 순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오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인 168 년에 고령의 뵈리카르포스 성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통치자는 성인에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 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왔으며, 그분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역사에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문이 있고 난 뒤에 성인은 산채로 불태워지는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형이 집행되었을 때 불은 성인의 주변에 일종의 아치를 만들어 머물러 있기만 했기에 할 수 없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성 대순교자 뵈리카르포스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봅니다. 그의 사랑은 정통 신앙으로 신자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단의 오류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인은 체계적인 말씀으로 영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유익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과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